

“시즌3에선 좀 더 주체적인 ‘안고은’ 되려고 노력했어요”

‘모범택시’ 표예진 “연기대상 우수상은 생각도 못했죠”

(모범택시) 시즌3에선 수동적이기 보단 좀 더 주체적이고, 김도기 기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운이가 되려고 노력했죠.”

지난 7일 만난 표예진은 ‘모범택시3’에서 시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안고은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고 전했다.

‘모범택시’ 시리즈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2021년부터 방영된 SBS의 대표적인 시즌제 드라마로,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무지개운수 팀원들이 어울한 피해자들 대신해 사이다 같은 복수 대행극을 펼치는 이야기다.

표예진은 극 중 김도기 기사를 뒤에

서 드는 현재 해커이자 무지개운수의 흥일점 안고은 역을 맡아 활약했다.

그는 “시즌2에서는 고운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시즌3에선 어떻게 해야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좀 더 발전한 고운이가 되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시즌제 드라마는 한 작품이 끝난 뒤에도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멤버들과 함께하고, 하나의 캐릭터를 오래 연기하다 보니 현장에서도



배우 표예진

〈시크릿이엔티 제공〉

이 입혀진 화면을 상상하며 시선 처리와 동선을 직접 짜고, 막무가내로 헬스

낼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시즌3에선 표예진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장면들이 많았다.

극 중 고은이 퀀틴 안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CG)

장에 쳐들어가는 장면에선 ‘인플루언서’로 분해 카메라를 들고 헬스장 곳곳을 찍는다는 디테일을 직접 추가했다.

시즌1 당시 불법 활동 피해자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났던 고운의 언니도 표

예진의 아이디어로 시즌3 마지막 회에

깜짝 등장했다.

“마지막에 무지개운수 식구들이 ‘만

약 우리에게 각각 아픈 사연들이 없었

다면, 우리가 과연 만났을까’라는 질문

에, ‘운명처럼 어떻게든 만났을 것’이라

고 담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어 식구들

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상 신

이 나오는데, 그때 고은이는 언니와 함

께 있으면 어떨까 싶었죠.”

그는 “사실 대본에는 그냥 ‘고은이 친

구와 밥을 먹는다’ 정도로 적혀 있었는 데, 제가 ‘이왕이면 언니와 행복하게 지

내는 모습은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감독님도 좋아하면서 언니 역의 배우분을 모셔 와주셨다”며 “시즌1 이후 고은이가 언니와 만난 건 처음인데, 찍으면 서도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어느덧 5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무지개운수 식구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표예진은 “사실 시즌1 때는 제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적응하느라 바빠 많이 친해지지 못했는데, 이런 형제 같은 느낌이 있다”며 “대선배님이신 김의성 선배님을 비롯한 모든 무지개운수 식구들이 이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신 덕에,

이젠 제가 먼저 장난도 치고, 연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떠올렸다.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선 표예진이 우수상, 이제훈이 대상을 받는 등 ‘모범 택시3’로 무려 5관왕을 차지했다.

그는 “시즌3를 기다려주신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기뻤다”며 “우수상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의 드라마상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표예진은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김도기 기사를 돋고 싶다면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즌3에서 고은이가 택시 면허도 따고 현장에 잠깐 투입되기도 했거든요. 김도기 기사가 힘에 부칠 때면 언제든 도와주고 싶어요. 다음 시즌이 있다면 같이 현장에서 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날마다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24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주말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월요일이다. 36년생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평소보다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져 한참을 앉아 있게 된다. 48년생 가족들에게 일부 전화를 하고 싶지만 다들 바쁜 시간일까 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60년생 집안에 고장 나거나 순박이 할 곳이 눈에 띄지만 귀찮아서 다음으로 미룬다. 72년생 출근하자마자 이번 주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잠시 머리가 지끈거린다. 84년생 주말 동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오전 내내 명하다. 96년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찾아와 마음이 심상생강해진다.



소띠: 농북히내 할 일을 하지만 웬지 모르게 의욕이 나지 않고 저자는 기분이다. 37년생 잔인히 깔깔하여 밥 생각이 없지만 악을 먹거나 기운을 차리기 위해 억지로 든다. 49년생 하루 종일 별다른 연락이 없어 핸드폰이 조용하니 괜히 적적한 마음이 든다. 61년생 깜빡 잊고 행운을 놓았을 때 다시 움직이거나 당황하는 일이 생긴다. 73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오를 때 거슬리지만, 분란을 만들기 싫어 무시한다. 85년생 통장 잔고나 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며 절약을 다짐한다.



호랑이띠: 의욕적으로 시작하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다. 38년생 평소 잘 두던 물건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온 집안을 찾아 해매며 경망증을 빚는다. 50년생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62년생 계획했던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겨 마음이 급해진다. 74년생 아침부터 시간이 평소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쫓기는 기분이 든다. 86년생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상황을 봐서 꼭 참고 속으로 삼킨다. 98년생 껏나눠도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현실의 벽을 느낀다.



토끼띠: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사소한 자극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날이다. 39년생 평소 잘 두던 물건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온 집안을 찾아 해매며 경망증을 빚는다. 51년생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63년생 계획했던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겨 마음이 급해진다. 75년생 아침부터 시간이 평소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쫓기는 기분이 든다. 87년생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상황을 봐서 꼭 참고 속으로 삼킨다. 99년생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휴지민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채우고 싶다.



용띠: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며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하루다. 40년생 버리지 못한 옛날 물건들을 보며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실행이 어렵다. 52년생 배우자가 행경준다고 하는 말이 간신히 허락 느껴져 귀찮은 마음이 든다. 64년생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가 겁나고 지갑을 열 때마다 주저하게 된다. 76년생 충분히 찾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물이 무거워 자꾸만 놓고 싶은 유혹과 싸운다. 88년생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잡히지 않아 모니터나 책만 멍하니 바라본다. 00년생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억울하다.



뱀띠: 나서지 않고 조용히 관통하며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41년생 잠자리가 편치 않아 자다 깨닫고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우지 않다. 53년생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가 지루하면서도 다른 행아이여서 진진다. 65년생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뜻 결제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다. 77년생 주거 문제나 집안일 등 현실적인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89년생 돈 들어 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답해한다. 00년생 자기 관리나 절약을 다짐해보지만, 눈앞의 유혹에 마음이 약해진다.



말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서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42년생 컨디션이 저조하여 속상해지거나 예상치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고민된다. 54년생 곤란한 부탁을 받게 되어 거절할 핑계를 찾느라 머리가 지끈거린다. 66년생 아랫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여도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한다. 78년생 오후가 되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당시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피곤하다. 90년생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연락만 와서 확인할 때마다 실망한다. 02년생 땀하게 까여 있고 싶지만, 내일 일정을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잠든다.



양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빠 보여 말하기 망설여진다. 43년생 TV를 보거나 뉴스를 듣다가 슬픈 소식에 내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진다. 55년생 난방비나 전기세 걱정에 집안 온도를 조절하며 절약을 실천한다. 67년생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외교 담이 없어 괜히 민망하고 미쓱해진다. 79년생 뒤로 시간이 다가오는 데 일이 무마리되자 애지침에 늦게 갈 게 같아 불안하다. 91년생 운동이나 자기 관리를 하려고 마음먹지만 구찮음이 물려와 나직 갈등을 겪는다. 03년생 진로 선택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다.



원숭이띠: 용통성을 발휘해 날처운 상황을 요령껏 피해가야 하는 날이다. 44년생 매일 쟁여야 할 것을 깜빡 잊어버려 뒤늦게 행기거나 건너뛰게 된다. 56년생 가족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오늘따라 눈에 거슬려 잔소리하고 싶어진다. 68년생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게 되고 눈이 침침해 당황한다. 80년생 윗사람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 눈에 띠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낸다. 92년생 사소한 실수를 할 뻔했지만 다행히 미리 발견하여 기분을 쓰러내린다. 04년생 관심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헤아리고 고민한다.



닭띠: 날카로운 신경을 무디게 하고 동글게 생각하려 노력해야 편안하다. 45년생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자리에 꼬리로 물을 끌어 밤이 길게 느껴진다. 57년생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지만 싸움이 되거나 일침을 퍼붓는다. 69년생 서로운 기기나 디자인 환경이 낯설어 사용할 때마다 긴장하고 위축된다. 81년생 주변에서 들리는 날 이야기에 끼여 싫고 싫어 모른 척 귀를 닫고 일만 한다. 93년생 일상의 편의성을 놓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친구처럼 되어준다. 05년생 아침에 준비한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신경 쓴다.



개띠: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려 하지만 자꾸만 떤 청탁을 피우고 싶어진다. 46년생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예의 없는 사람을 보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는다. 58년생 자고 일어나도 몸이 짜증이 든다. 70년생 예상치 못한 곳에 듣을 일이 생겨 이번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게 된다. 82년생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감을 느끼며 변화나 일탈을 꿈꿔본다. 94년생 곤란한 부탁을 받을까봐 미리 걱정하며 미운을 씹고 괜히 싶다. 06년생 어려운 문제나 과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책상 앞을 떠나고 싶다.



돼지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서도 혼자 있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다. 35년생 적적한 마음에 라디오나 음악을 들어놓고 흥얼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59년생 자녀에게 연락이 없어 서운하지만 바빠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하려 한다. 71년생 주변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내 시간은 빼기지만 걸로는 웃어준다. 83년생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 사람들에게 치다 보니 목적지에 닿기로 전에 지친다. 95년생 뱃이 되면 감수성이 풍부해져 옛기억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많이 진다.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2026 광주매일신문 시무식

‘제야의 종 타종식’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다

Shorts

#만화 #K팝 #야구 Z세대 ‘덕질’ 문화를 만나다

파워인터뷰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주최한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TV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광주)

7:50 인간극장

6:00 경어서 세계속으로 트래

7:00 블홀릭

7:00 TV 유치원